

보도시점 2025. 9. 18.(목) 15:00 배포 2025. 9. 18.(목) 15:00

김호 위원장, 임업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

- 대통령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, 임업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

대통령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9월 17일(수) 임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임업인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.

간담회에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,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, 한국산림경영인협회, 한국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, 한국산림기술인회, 한국목재칩연합회, 한국양묘협회, 한국밤재배자협회, 한국원목생산협회,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, 남북산림협력포럼, 한국조경수협회, 한국산림토석협회, 한국수목보호협회, 한국분재조합이 참석했다.

이날 간담회에서 ▲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, ▲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등 새 정부의 농업·임업 관련 국정과제 내용을 공유하였다. 이어 김호 위원장 주재로 임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.

참석자들은 ▲ 입목 재해보험 적용 등 농업에 준하는 임업세제 개선, ▲ 민간 정원 활성화, ▲ 국산목재산업 활성화로 기후변화 대응, ▲ 숲관리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, ▲ 버섯 원목공급 수종 다변화, ▲ 산림분야에 적극적 예산지원, ▲ 소외없는 임업인 지원체계 마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
특히,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은 “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녹화 성공국가로 이제 녹화에서 경영이 되는 숲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”라며 “임업이 새 정부 농정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임업에 대한 적극적

관심과 지원”을 요청했다.

정은조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회장은 “임도는 등산로, 산림레포츠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휴양·복지 기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”라며 “산림의 기능이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”고 제안했다.

김호 위원장은 “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산어촌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, 농산어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정책 실행력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농어촌정책팀	책임자	팀 장	엄성준 (02-6260-1221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준 (02-6260-1227)